

## 한국의 건축가 10 - 배기형(2)

Korean Architect, Bae Gi-Hyeong

그의 작품세계(1)

원정수 / 인하대 건축학과교수

한국근대건축역사 자료로서 정확하고 객관성있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하여 증인들의 체험담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특히, 배기형 선생의 초기 활동 내용과 건축가상은 함성권(전 한양대 교수), 장기수(현 부산동인건축)씨와 신건축문화연구소 시절부터 10년간 재직한 김창서(현 협화건축)소장, 그리고 함성권 교수의 구조담당 조수로서 배기형의 건축작품활동상을 가까이서 지켜본 주경재(현 건국대)교수, 실습생으로 신건축문화연구소 시절과 1959년 군제대후 구조사 복직 근무한 최영규(현 인하대)교수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후기의 활동상은 현 구조사 대표 윤홍갑 소장과 그 당시 근무했던 이동배(현 인하대)교수, 이문섭(현 인하대)교수가, 그리고 1970년대 구조사를 윤소장에 물려주고 난 뒤의 활동상은 김석철(현 아키반), 방수일(현 범일건축)소장의 증언을 토대로 하였다. 보다 객관성있는 기록을 위해서 각 증인들은 자신의 기억이 불투명한 경우 당시에 관련되었던 또다른 증인을 찾아서 확인하는 성의를 보여주는 등 사실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었다. <필자 주>

### ◇ 연 재 목 차 ◇

(계재월)

1. 이회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9701~9702)
9. 김중엽 (9703~9707)
10. 배기형 (9710~9801)

1. 건축가 배기형에 관한 기록과 자료
2. 그의 작품세계(1)
3. 그의 작품세계(2)
4. 증인들의 증언

### 시대적 상황

배기형의 건축작가 활동시기는,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게 되는 광복과 더불어 건국된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과 함께 전개된다.

본격적인 건축설계 활동은 6.25전쟁이 휴전되는 1953년 이후 부산으로



한국건축가협회 제1회 정기총회를 마치고(1966. 2. 15. 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배기형선생, 6대회장 역임(68~70))

피난갔던 수도가 서울로 환도하면서 처참했던 전쟁의 상처로 찢어터진 전국의 도시와 마을, 그리고 공장과 도로등 각종 건설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시기부터 건축가들의 일손이 바빠지게 된다.

특히, 건축가 배기형의 건축설계 활동이 활기를 띠게되면서 그가 많은아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것은 공장건설에 기본이 되는 철골구조물의 설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가장 두드러졌기 때문이었다.

이는 마치 영국의 처칠 수상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시 국가 위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이를 극복해내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했던 것처럼 또, 19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산업혁명으로 인한 근대건축의 새로운 구조와 공간을 역사상 최초로 대형 철골 구조로 해결했던 영국의 건축가 죠. 팩스톤(1851년 런던.수정공 설계)과 파리의 에펠(1889년.에펠탑 설계)처럼, 배기형의 건축설계의 내용은 한국 최초로 해결되어지는 건축구조와 건축기술문제가 특이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것은 바로 한국 근대건축의 역사적 상황과 배기형의 건축이 서로 시기적절히 맞아 떨어지는 가운데 그의 기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었고, 건축가의 창작 및 연구심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역사적 상황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시점과 6.25전쟁의 상처가 전국토를 파괴하여, 마치 전국토가 건설용지의 빈 택지가 되어진 셈이었으며, 근대건축역사의 핵심이었던, 철과 시멘트와 유리로 설계되어지는 공업중심의 건축과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역사가 펼쳐진때 배기형의 건축이 등장하면서 국가 경제기반인 산업시설이 원활히 움직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 작품 활동의 진화과정

### • 구조사 건축기술연구소 창립

그의 건축인생을 청년, 장년, 노년기로 나누어 말



동료건축가와 함께(앞줄 오른쪽에서 첫번째가 배기형 선생)

할 수 있듯이 그의 건축작품이 성장, 진화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의 이력에 나와있듯이 1953년 인천의 대한중공업 공장을 설계할 당시는 건축가 배기형이 한국건축계에 등장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전환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1953년을 기점으로하여 그 이전을 건축교육 및 건축전문 기량을 다지는 수련, 성장과정이라 했을때 이시기는 사회 활동의 기반을 다지는 도약단계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초기 전반에 활동했던 그의 건축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구하기는 불가능해, 그의 구체적인 건축활동을 재조명하고 돌이켜 볼 수가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다만 부산공업고등학교의 후배이며, 문학생인 장기수(부산 동인건축) 소장이 소장하고 있는 도면 가운데, 해방전 일본의 니시지마 건축사무소에서 그랬던, 만주 안산 제철소를 출장다니면서 설계한 광석 싸이로 구조의 설계도를 보고 크게 감명받았던 기억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해방후 일본에서 귀국하였으나, 설계활동의 여건이 어려웠던 시기여서 1946년 구조사건축기술연구소를 개설하고 설계에 전념할 수 만은 없었고, 당시 교우관계로 인연이 되어 건설사업을 겸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정도였으며,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 있는 곳에 부산대학교 임시 교사를 설계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 • 인천 대한중공업 공장 설계

본격적인 건축설계 활동이 시작되는 것은 1953년 인천의 대한중공업 공장을 설계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데 이 과정을 함성권 교수의 정년기념 논문집, 회고문(p.32)에서 인용하여 본다.

“(전략)… 인천 제철의 전신인 대한중공업공사의 평로공장건물의 설계는 당초 건축가 김태식 선생이 엄덕문씨의 구조계산으로 설계가 일단 완료된 것인데 뒤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당시 당시 전무였던 야금학과(冶金學科)출신의 대학동창의 요청으로 본인(함교수)이 당사의 촉탁으로 임명받고 설계도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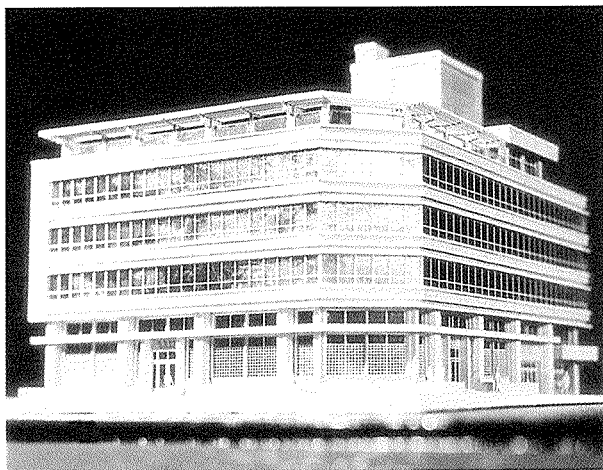
설계실에서 사무소원과 함께

시하기로 되었습니다. …(중략)… 이 공장건물 자체가 80톤, 50톤, 20톤의 2단 천정 주행 크레인을 가진 높이 25m의 단층 중구조물이라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중략)… 우리나라의 이 방면의 인력을 규합하여 설계를 진행키로하고 섭섭하지 않게 전 설계관계자도 새로운 설계에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이때의 설계멤버는 구조담당인 본인과 김창집 교수외에 고 정인국 대학선배를 비롯하여 배기형, 김태식, 엄덕문의 제시였으며, 서로가 진력한 끝에 설계가 원만히 끝나고…(중략)… 무사히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멤버들은 이 설계를 계기로 종로1가의 장안빌딩에 신건축문화연구소라는 합동설계실을 마련하여 그후 많은 작품활동을 하였고, 당시 오늘날의 협회건축의 김창서씨와 본인의 사위 주경재 교수, 인하대의 원정수 교수 등의 내조의 공이 컸습니다. …(후략)

위의 함성권 교수 회고록 증언에서 밝혀졌듯이 배기형은 우수한 건축설계 기량이 부각되면서 많은 공장건축설계를 의뢰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삼성이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폭제가 된 부산의 제일제당 공장과 대구의 제일모직 공장의 종합계획과 설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므로써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굳은 신임을 받게되어 탄탄한 설계활동 기반을 다지게 된다.

제일제당 공장설계의 성공적인 실적으로 1955년 동양제당, 웅산공장 설계의 요청을 받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데, 당시 주먹구구식의 설계도로 건설하던 제당 공장 구조와 생산시설물이 서로 맞지않아 어려움을 겪던중, 배기형의 재설계로 완공되어지게 된다.

당시 설계비의 보상조건은 먼저 영터리로 건설했던 건축비와 재설계로 건설된 건축비가 절약된 차액만큼을 설계비로 보상받기로 하였던 바 그 차액이 실로 일반 설계비 산정 비율 액수보다 고액이어서 동양제과측은 정당한 건축설계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 건축가 배기형의 건축설계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지게 되어 심지어 개집까지 설계를 의뢰받는 웃지 않을 수 없는 일까지도 있었다.



한일은행을지로지점 초기모형(사진속의 외관과는 달리 현재는 개조 변형되었다.)

• 신건축 문화연구소

인천의 대한중공업 공장 설계로 인하여 탄생되어진 건축가 김희춘, 정인국, 엄덕문, 배기형, 김창집, 함성권 등 여섯명이 모여 1954년 종로 1가 장안빌딩3층(건물현존)에 자리잡는다.

사무실은 제도판 10여개를 놓고 소파와 사무경리 책상을 겨우 들여놓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이었으며, 주로 김희춘, 정인국, 엄덕문, 배기형 등 네명의 건축가의 제도판과 상임설계 요원인 이재영, 김창서(현 협회건축), 김진균(재 캐나다) 그리고 각대학 건축과 실습생들의 제도판으로 채워진 곳에서 여러 가지 설계작업이 진행되었다.

그중 대학교수를 겸직하지 않고 언제나 제도판에 몰두하고 있는 건축가는 배기형뿐이어서 실제로 신건축문화연구소 합동설계실은 배기형과 김창서, 김진균 그리고 필자로 구성된 구조사 기구의 설계업무가 주류를 이루는 분위기였다고 생각된다.

삼성계열의 공장설계로부터 주택에 이르는 거래, 업무 그리고 단상사 김인득(후 한국건설협회장)사장의 거래로 주류를 이루며, 바쁜시간에 쫓기는 설계작업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당시 여러 건축가가 모여있던 장안빌딩 3층 사무실은 기라성 같은 건축가들의 발길이 잦아 한국 건축계의 판도와 움직임을 가늠해 볼 수 있을 정도였다.

모임은 밤늦게까지 밤문화를 꽃피게하고, 건축가들의 낭만이 넘쳤다.

건축가의 꿈을 안고, 작도에 몰두하는 나의 귀청에는 원로건축가들의 밤문화 무용담을 엿듣는 수련까지 곁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수확이었다고 느낀다.

여기서 한국건축가협회가 태동하는 발기 토론도 있었고, 한국건축발전을 위한 잡담과 대화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이런 분위기에 휘말리는 배기형의 건축세계는 철골 구조의 기술과 설계의 탄탄한 실력 뿐만 아니라 건축가의 저력을 첨가하게 되는 건축문화와 사회를 이끌어갈 힘을 갖게 되는 기회였다고 본다.

• 구조사 명의로 환원

1956년 장안빌딩 화재로 말미암아 합동사무실은 해산하여 구조사의 명칭으로 환원되어 을지로, 충무로 사무실 등으로 옮겨가면서 종로, 영보빌딩으로 자리잡게 된다.

구조사가 의뢰받는 설계프로젝트의 주류는 공장과 철골구조물이어서 많은 경험과 우수한 설계 실력을 지닌 배기형이 건축계획과 설계를 거의 독자적으로 구상하였고 설계도 역시 직접 완성하였다.

그러나 건축가 배기형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도시

문화 기능의 빌딩, 은행, 극장, 교육시설, 주택 등 새로운 건축창작품을 창출하여 경쟁을 벌이는 현상설계에까지 참여하는 건축사무소로 발전되었다.

필자는 실습생의 능력으로 기성건축가의 대역을 하며, 계획잡무를 처리하다 공군시설장교로 입대하여 공군본부에 적을 두게 되었는데 이 때도 간접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계획설계 작업에 참여하였다.

총주비로 사택단지 현상설계가 공고되었을 때 건축가 엄덕문의 합작 제안에 따라 구조사 최초로 현상설계에 참여하게 된다. 계획은 필자가, 투시도는 이윤형(재 캐나다)이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당선된다. 그러나 점차 건축계획을 담당할 상임 건축 파트너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필자가 군복무하는 동안 대역으로 구조사 일원이 된 지 순(현 간삼건축)에게 배기형의 지도하에 건축계획을 맡기고, 간접적으로 구조사 프로젝트를 관여하는 기회가 얼마간 이어졌는데 이 당시는 중앙극장 증축, 반도극장(현 피카디리극장), 을지극장 등의 극장설계가 계속되던 때이다.

그 뒤 지 순도 주택공사로 자리를 옮기고, 필자도 구조사와 협력하는 기회가 어려워지게 되어갔다. 이때 한양대학을 휴직하던 박학재 교수가 1958년 구조사 을지로 사무실에 파트너로서 배기형의 건축계획을 담당하게 되어 한일은행 제주지점이 설계된다. 그러나 박교수와 배기형은 협력관계와 주종관계의 조화가 어려워 보였으며, 서로 헤어지게 된다.

• 독자설계방식에서 설계조직으로

구조사는 명성과 함께 설계업무가 늘어나면서 빠르게 성장해 갔다.

그 당시 종로 영보빌딩에서 눈부신 활동을 보였던 종합건축연구소의 이천승과 김정수가 서로 헤어지는 변혁이 일어난다.

김정수는 연세대학의 전임교수로 떠나고, 이천승은 일부 멤버를 이끌고 배기형 구조사에 합류하였으나, 그 가운데에서 이최영(작고)만이 구조사에 잔류하였고 구조사의 조직과 분위기는 점차 기업형, 설계사무소 조직으로 변모하면서 규모가 확대된다.

배기형의 분신같은 설계실력을 갖춘 김창서는 오로지 설계 해결의 연구와 설계도의 질적 내실을 만들어 나가는 책임감에 몰두하고 이최영은 사무실 멤버들을 이끌어 나가는 대부역할을 맡는 사무실 체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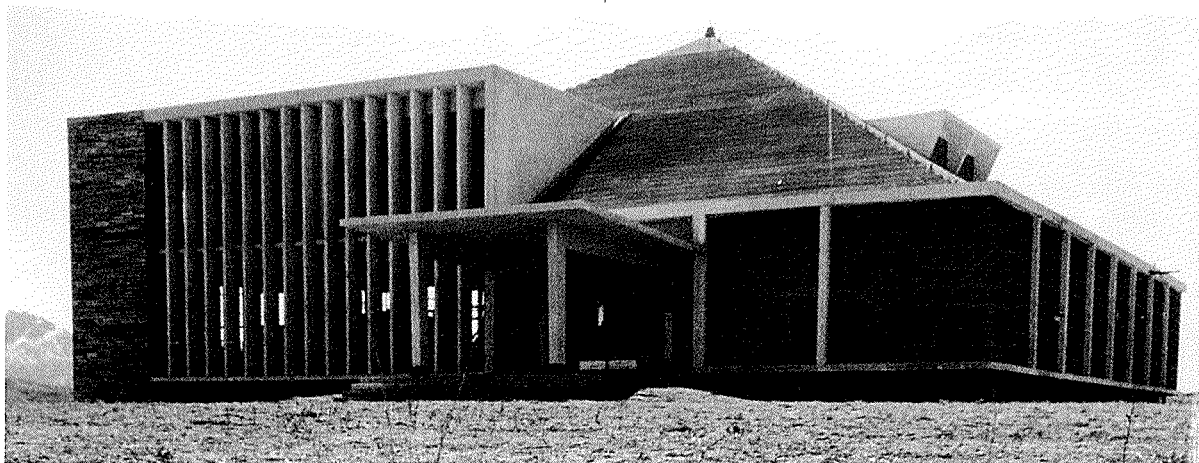
건축 디자인 담당 인력은 최장운, 김현석(작고)을 주축으로한 젊은층이 주류를 이뤄 참신하고 의욕이 넘치는 창작 분위기가 정착돼 갔다.

1959년 군에서 전역해 복직한 구조담당, 최영규(현 인하대학교수)는 구조역학 해석에서 설계도에 이르기까지 능숙한 설계 경력으로 합류하여 구조사 설계팀은 정상급의 인력을 갖추었다.

장종윤(작고, 건우사 개업)을 중심으로 계획설계를 담당하여, 호남비료, 독신자 숙소현상 당선작을 계획 설계하고 이어서 삼성그룹이 관여하는 한일은행의 전국지방 지점 건축계획과 건축 디자인의 새로운 기술 해결을 위한 건축상세에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하게 된다. 배기형의 건축설계는 직접 독자적으로 제도판을 마주 앉아 생각하고, 연구하고, 작도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일관되어 왔으나, 수십명의 인력을 관리해야 하는 설계조직에서는 직접 관여하는 설계생활방식의 어려움을 체험하게 된다.

많은 프로젝트를 처리하고 대형화, 대규모화되는 건축 규모를 모두다 꼼꼼히 관여해야만 하는 성품이었으며 재래식 독자적 설계방식에 익숙했던 마음에 건축적 내실 및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갈등이 커져가는 것도 느낄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때가 중요한 작품이 많이 나왔던 시기였다고 본다.

공군사관학교 도서관, 체육관, 조흥은행 남대문



서울 대방동에 위치했던 구 공군사관학교 도서관

지점, 유네스코 회관, 공군기지의 격납고, 제일모직 대구공장의 철근콘크리트 셸구조, 그리고 한국전력, 영월발전소, 서소문의 중앙일보사옥 등 왕성한 설계활동의 전성기를 보내는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1967년 건축사법이 발효되어 건축사자격을 획득한 건축사무소 멤버들이 독자적인 건축설계 활동을 위해 건축사무소를 개설하면서 종전의 기성 건축가 중심의 설계사무실에 인력누수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배기형의 건축 작품세계를 앞서서 펼쳐나갔던 그의 분신인 김창서가 구조사를 떠나게 되는데 이것은 배기형의 건축활동 행보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이를 구조사 역사의 전·후반 분기점이 되는 시기로 본다.

• 구조사를 벗어나며

1968년에는 건축가협회 회장이 되면서, 한국건축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심사가 커지고 활동 역시 열의가 높아진다. 따라서 설계에 전념하면서도 다양한 건축사회 문제에 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축계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구조사의 운영과 설계에 관여하는 비중을 덜고 지금의 구조사 책임자인 윤홍갑에게 위임하면서 1970년에는 김인득 회장의 권유로 한국건업의 연구소를 창설하여 중동건설 진출을 위한 건설기술개발과 량산주택 개발연구에 다시 몰두하는 열의를 보이면서 구조사로 가는 발길이 뜸해진다.

1960년대는 민간기업의 다양한 프로젝트에서부터 군관계의 특수시설에 이르기까지 건축가 배기형에게 설계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높은 신뢰와 지명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있어 이 시기는 한국건축계에서 확고한 지위를 굳힌 전성기였다.

이에 비하면 1970년대는 설계를 둘러싼 경영,

운영에 관한 문제로 다소 희의를 보이던 시기로 사무실에서 박력 있고, 열의에 찬 모습으로 건축작품에 몰두하던 건축가 배기형에게는 그다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못되었다. 오랜기간 몸담아온 구조사에서 건축의 세계를 마음껏 뛰고 싶었던 건축가에게는 부담스러운 마음의 짐이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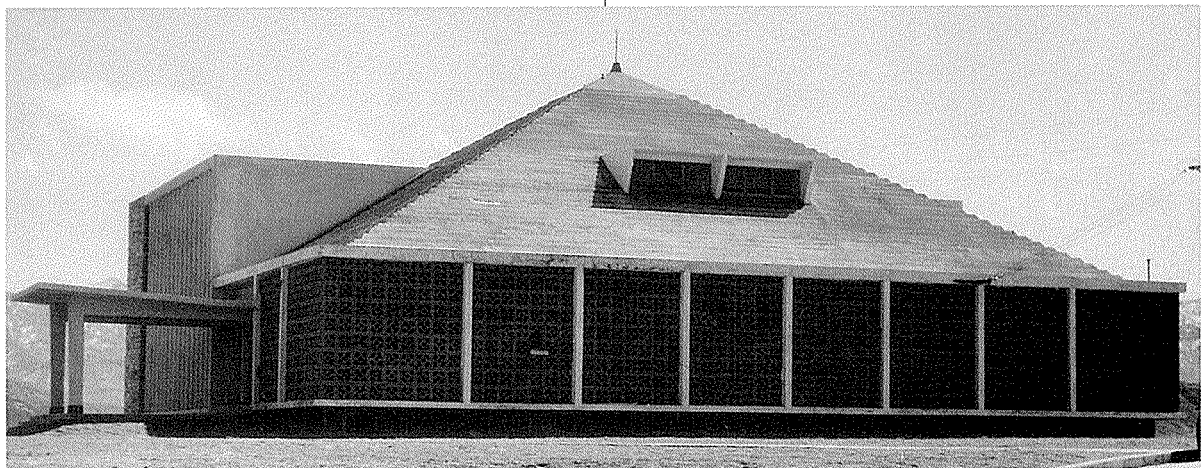
그러나 이미 배기형은 구조사와 무관하게 김석철(아기반)팀과 교우하며 현상설계를 협력하였고 개인적으로 마음껏 건축대화를 교감하며 작품생활을 갈망하였다. 그러한 그의 모습이 마치 야인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건축가는 작품을 구상하고 창작 생활에 몰두할때 항상 건강한 모습을 유지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건축가의 잡념과 가정불화, 건축의 정도를 벗어난 건축의 부정요소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느낄때 건강 역시 무너지기 쉽다.

마음의 건강이 흔들리면, 몸의 건강을 잃은 것처럼 병원에서 커다란 치료를 받았다.

배기형은 실제로 건축을 포기하고 남은 여생을 위하는 듯한 모습으로 옥인동의 주택과 지영으로 유지되는 공동육장을 겸한 생활터전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리고 그 뒤 치료를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건강이 회복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건강을 되찾은 기쁨으로 또다시 동해필드 프로젝트에 몰두하다 파로로 쓰러지게 되고, 결국 병이 재발되어 건축가 배기형은 아쉽게도 60세를 갓 넘긴채 일생을 마치게 된다.



서울 대방동 보라매공원 자리에 위치했던 구 공군사관학교 도서관